

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국제수산기구 총회 의장 선출 탁월한 국제회의 진행 능력 인정 받아

- 2024년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작년보다 16% 증가한 14,805톤으로 결정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에콰도르 만타에서 개최된 '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(SPRFMO*) 제12차 총회'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차기(2024. 3.~2026. 2.)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.

* SPRFMO(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) : 남태평양 전갱이, 대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2년에 수립된 국제기구 (우리나라, 뉴질랜드, 미국, EU, 중국, 칠레, 호주 등 총 17개 회원국으로 구성)

김 주무관은 그간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(WCPFC)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CCAMLR) 등 주요 국제수산기구에서 총회 의장, 이행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, 최근에는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의 총회 의장 및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(NPFC)의 총회 부의장으로서 국제 논의를 이끌며 그 역량을 펼쳐 왔다. 이를 통해 보여준 탁월한 의사진행 능력을 인정받아, 미국, EU, 호주 등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번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(SPRFMO) 총회 의장직까지 맡게 되었다.

한편,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2023년의 12,753톤보다 16% 증가한 14,805톤으로 결정되었다.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 초기에 우리나라, 칠레, EU 등 전갱이 조업국들이 다년간 어획량을 감축하며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, 우리나라의 어획한도량은 2019년 7,578톤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우리나라 조업 이익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수산자원 보존, 조업감시, 기후변화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을 선도하며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”이라며, “특히,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김 주무관의 의장 임기 동안 선원 근로 표준 마련, 해양보호구역 설정, 기구 운영 효율화 등 주요한 사안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지현 (044-200-5330)
	국제협력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심수빈 (044-200-5333)

□ 학력 및 자격사항

- 2004. 2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(법학사)
- 2010. 2. 서울외대통역대학원 국제회의통역학과 졸업(국제회의통번역학 석사)

□ 주요경력

- 2010. 7~2013. 12 : 농림수산물부 전문관
- 2013. 12~2017. 3 : 해양수산부 전문관
- 2017. 3~현재 : 해양수산부 주무관(국제통상부문 민간경력채용)
- 2016. 5~현재 :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 총회 부의장
- 2017. 2~현재 :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 성과평가검토회의 의장
- 2015. 10~2016.10 :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CCAMLR)
법률문안그룹 의장
- 2016. 10~2020.10 :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CCAMLR)
이행위원회 의장
- 2016. 12~2018. 12 :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총회 부의장
- 2018. 12~2022.12 :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총회 의장
- 2021. 6~ 현재 :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 총회 의장
- 2023. 3~ 현재 :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(NPFC) 총회 부의장



참고 2

남태평양 지역수산물관리기구(SPRFMO) 개요

□ 설립목적 : 남태평양 공해의 경계왕래성 비참치어종 보존 및 관리

□ 일반 현황

- 협약 채택일/발효일 : '09.11.14./'12.8.24.(가입일 : '12.8.24.)
 - 사무국 소재지 : 뉴질랜드 웰링턴
 - 가입국 현황
 - 회원국(17개국) : 한국, 쿠바, 칠레, 에콰도르, 뉴질랜드, 쿡제도, 호주, EU, 덴마크, 러시아, 대만, 중국, 바누아투, 미국, 페루, 파나마, 벨리즈
 - 협력적 비회원국(2개국) : 라이베리아, 퀴라소
 - 관리어종 : 전갱이, 대왕오징어 등 고도회유성이 아닌 어종
 - 전갱이 TAC 설정('23년) : 한국 12,753톤(전체 TAC 1,080,000톤)
 - 분담금('23년) : NZD59,009(약 4,800만원, 전체 예산은 NZD1,886,971)
 - SPRFMO 협약 수역 : 남태평양 공해(연안국 EEZ 미포함*)
- * 단, 칠레 및 에콰도르는 자국 EEZ 수역을 관리대상에 포함

